

2월 둘째 주 그룹큐티나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2:1-12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 가나의 혼인 잔치(찬송 136장)
-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단순히 흥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잔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모친의 말에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며 시큰둥하게 말씀하시지만, 이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에 다시 생기가 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생기를 잃어버린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에 그치지 않는 기쁨을 주러 오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통해 자신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혼인 잔치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포도주가 떨어집니다(1-6절).

1)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먼저 알립니까?(3절)

예수님에게 알린다.

모친 마리아가 예수의 신적 능력을 다 알고 예수님께 포도주 떨어진 사실을 알린 건 아니다. 다만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온 과정과 목적을 그 누구보다 마리아가 잘 알고 있었기에(참조. 마 1:18-25; 눅 1:30-33), 마리아는 ‘흥’(기쁨)이 깨질 위기의 혼인 잔치를 예수가 다시 살릴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말했던 거다.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일주일간 지속되는 잔치가 자칫 도중에 중단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마리아는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결핍과 절망의 문제를 안고 예수께 나아간 것이다.

2)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리는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무엇입니까?(4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자여’(헬. 귀나이)라는 말은 모친을 무례하게 부르는 게 아니다. 당시 ‘귀나이’는 친한 여성을 부르는 일상적인 호칭이었다. 다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귀나이’라고 부른 건 예수가 공적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참조. 요 19:26).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은 ‘그것이 어머니께나 나에게나 무슨 상관입니까?’라는 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한다. 요한복음에서 ‘내 때’(헤 호라 무)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7:30; 8:20; 12:27; 13:1),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는 시간을(12:23; 13:31-32; 17:1, 5) 의미한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의 표적이 십자가, 부활 사건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적으로 드러내려 한 것이다.

3) 예수님의 시큰둥한 반응에도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어떤 지시를 합니까?(5절)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의 다소 무심한 듯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종들에게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지시한다. 이는 예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믿음의 제자도와 깊은 관련 있다. 첫 번째 표적(가나 혼인 잔치)에서는 마리아의 믿음이 강조되어 나타난다. 마리아가 비록 모친이지만 그 역시 예수 앞에서 제자 관계로 소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눔 1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이 사실을 맨 먼저 예수님께 알립니다. 예수님께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해결을 바라며 주께 기도하는 일은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나눔 2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심한 듯한 말씀에 실망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믿고 행동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로 내게 변화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2.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혼인 잔치에 다시 생기가 돕니다(7-12절).

1) 예수님이 하인에게 내리신 명령은 무엇입니까?(7- 8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6절의 ‘통’(메트레테스)은 약 40리터 정도의 양을 말한다. 그러므로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가 6개 있다는 것은 총 500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다는 말이다. 원래 이 돌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율법에 의하면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부정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참조. 레 11:33). 그래서 돌항아리를 정결 예식 통으로 사용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 돌항아리 여섯에 500리터나 되는 물을 부으라고 명령하신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한다.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이다. 하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순종이 생명의 역사를 창출한다.

2) 연회장은 하인이 가져온 포도주를 맛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9-10절)

이 집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다며 (물에서 바뀐) 포도주 맛에 감탄했다.

하인이 가져온 것은 맹물이 아니라 진한 포도주였다. 그것도 최상급 포도주였다. 연회장은 감탄하면서 신랑을 불러 칭찬한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 기적이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통해 자신은 율법보다 훨씬 더 큰 존재라는 걸 보이신 것이다. 예수는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표적을 행할 것이다.

3) 가나 혼인 잔치에서 첫 표적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11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요한복음에 총 여섯 번의 표적이 나온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요 2:1-11),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친 표적(4:46-54), 38년 된 병자를 고친 표적(5:1-9), 오병이어 표적(6:1-21), 맹인을 치유하는 표적(9:1-7),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11:1-44). 이 표적들이 공통으로 지향하는 바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생명과 안식을 선물한다는 거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하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다.

나눔 3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창조하시듯 죽어 가는 잔치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불어넣으신 생기, 안겨 주신 기쁨은 무엇입니까?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삶 -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생명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게 하소서.

공동체 - 죄와 사망의 그림자 아래 신음하는 이 땅에 참된 생명과 안식을 공급하여 주소서.